전북대 박재영 교수, 번역서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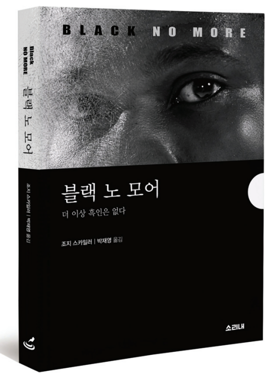
미국 스카일러 소설 ‘블랙 노 모어-더 이상 흑인은 없다’ 국내 최초 번역 출간

박재영 교수

전북대학교 박재영 교수(사범대 영어교육과)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저널리스트이자 사회 평론가인 조지 S. 스카일러의 1931년 발간한 소설 ‘블랙 노 모어-더 이상 흑인은 없다’를 국내 최초로 번역 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영국 작가 앤 래드클리프의 1790년 소설인 ‘시칠리아 로맨스’를 번역 출간한 이후 1년 만에 또다시 역서(譯書)를 펴낸 것.

이 소설은 20세기 초 미국의 인종, 정체성, 사회적 지위 문제를 통렬하게 파헤친 작품이다. 미국 내 인종 문제의 복잡성에 대해 신랄하고 예리한 논평을 통해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학의 중요한 작품으로 받아들여졌다.



‘블랙 노 모어-더 이상 흑인은 없다’ 표지

작가에 따르면 소설의 주인공인 주니어스 크루크먼 박사가 발견한 과학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박사는 ‘블랙-노-모어’라는 흑인을 백인으로 바꿀 수 있는 과학적 혁신을 발견하고, 이 시술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 대중에게 제공되면서 수많은 흑인이 백인으로 변하게 된다. 그 속에서 흑인이 사라진 미국 사회가 겪게 되는 사회적 격변이 흥미롭게 묘사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인종적 정체성과 사회 구조에 대한 이념을 풍자하며 미국 사회에 만연한 위선, 편견, 모순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원작자 스카일러는 유머와 재치, 풍자의 렌즈를 통해 인종 정체성의 복잡성과 도전, 사회적 출세 추구, 인종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인식에 내재된 모순을 탐구한다.

박재영 교수는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는 스카일러의 이 소설은 인종차별에 대한 미국 사회의 모순을 풍자를 통해 묘사하고 있는 수작”이라며 “이번 번역서 출간을 통해 국내 독자들이 영미문학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재영 교수는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에서 학부와 석·박사 통합과정을 공부하고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북대 영어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문학과 영화에 관한 30여 편의 논문을 썼고, 초등 영어 교과서와 고등 영어 교과서 집필에도 참여했다. /장은성 기자

국내 유일 고인돌 전문 박물관인 고창고인돌박물관이 ‘세계유산 도시 고창 대표 유물전’을 개최한다.

‘세계유산 도시 고창 대표 유물전’ 개최

고창고인돌박물관, 고창서 출토된 금동신발(복제품)·비격진천뢰 전시

국내 유일 고인돌 전문 박물관인 고창고인돌박물관이 ‘세계유산 도시 고창 대표 유물전’을 개최한다.

전시 유물은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복제품)과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출토 비격진천뢰이다. 고창에서 출토된 대표적인 유물들이다.

‘금동신발(金銅飾履)’은 의례용 신발로서 신발 바닥에는 뾰족한 못 18개를 규칙적으로 붙였다. 화려한 문양과 정교한 제작기법, 얇은 금동판을 다루는 기술에서 마한·백제의 발달된 금속공예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까지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 중 가장 완벽한 형태로 보이며, 2021년 4월 보물로 지정되었다.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는 무쇠의 탄환 속에 화약과 쇳조각을 넣고 폭발시간 조절장치(타이머)까지 갖춘 조선시대 독창적인 최첨단 무기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비밀병기·귀신폭탄·시한폭탄’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격진천뢰는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위임기관인 고인돌박물관에 2021년 귀속되어 보관·관리 및 활용 중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고창의 대표 유물들을 조금이나마 더 알리기 위해 전시를 기획했다”며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창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다양한 형태 작품으로 보자기 미학 선보인다

한국전통문화전당, ‘보자기 담다, 매다’ 기획전 3월 3일까지 전주공예품전시관서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이 오는 3월 3일까지 한 달여간 전주공예품전시관 1관에서 ‘보자기 담다, 매다’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공예 작품을 보관하고 장식하며 들고 다닐 수 있는 선조들의 보자기 활용법, 그리고 보자기의 미학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로 꾸며졌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국화매듭, 딸기매듭, 가락지매듭 등 전통방식의 매듭으로 만든 보자기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전시관 내에서 송출되는 ‘보자기 포장법’ 영상을 통해서도 전통 보자기 매듭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 후 개인 SNS에 공유하면 즉석 사진을 인화해 주는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전시는 다양한 형태의 보자기 작품을 통해 조형미와 색채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공예를 소개하고 공예의 인식을 대중화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오는 3월 3일까지 한 달여간 전주공예품전시관 1관에서 ‘보자기 담다, 매다’ 기획전을 진행한다.

한편,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누리집(jeonjucraft.or.kr)을 참고하거나 공예산업팀(063-281-1610)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2024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공공 공연장과 공연예술간 상생 협력을 통해 안정적 창작 환경에서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공연장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는 재단 내 유일한 연속 지원 사업으로 지원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이다. 단, 차년도 연속 지원 시 2024년 사업 운영 평가 및 심사를 통해 연속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올해 변경된 내용으로는 △초연 창작품 개발 시 지역적 특색을 기반으로 ‘전북스러움’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 및 발표 △공연장-공연단체 협약 건수 제한(공연장당 1개 단체만 협약 가능) △실행평가 결과에 따라 연속 지원 시 인센티브 적용(지원금 차등 지원) △장애예술단체 가점 점수 확대(2.5점→5점) 등이 있다.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나 창작지원팀(063-230-7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